

2017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부산광역시 동구
- 대한지역아동센터



2018. 1

이*서

지난여름, 이화봉사단에서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교육봉사에 참가하여 부산 대한지역아동센터에 다녀왔었다. 교육봉사를 통해 아이들을 만났던 일주일의 시간은 내가 힘든 2학기에 떠올리면 미소 지을 수 있는 추억이 되었었다. 그만큼 봉사가 끝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이화봉사단 국내 교육봉사 공지가 뜨자마자 같은 과 동기인 유은이를 설득하여 다시 지원하게 되었다. 처음 센터에 가자마자 윤서쌤 하면서 달려오는 아이들이 반가웠고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다. 아이들인 만큼 반 년 사이에 정말 많이 성장해있었지만 순수한 마음은 똑같았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준비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모두 좋아해주고 잘 따라줘서 고맷다. 성장한 만큼 더 무거워진 아이들에게 몸은 힘들고 아팠지만 함께 놀고 지내는 시간동안 즐겁고 행복했다. 기회가 된다면 대한지역아동센터에 또 와서 아이들을 보고 싶고 아이들의 기억 속에 생각나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은

첫 이화봉사단 봉사활동이었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어려웠고 생각했던 것 보다 보람차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활동성과 집중력을 적절히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고, 순간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또한 다양한 센터 상황에 맞추어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 곤란했다. 하지만 어려웠던 기억만큼이나,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순수했고 즐거웠다. 다른 의도 없이 순수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보는 나머지도 그에 물들게 하는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는 아이들을 볼 때면, 놀랍기도 하면서 보람감이 느껴졌다.

김*정

이화봉사단 참여는 처음이었지만 더 어린 아이들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린 아이들과 무언가를 진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 있어 시작 전부터 겁을 먹고 갔었다. 첫날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충격적이고 힘들었지만 둘째 날 부터는 서로에게 적응하며 차근차근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미숙한 초보 선생님이지만 큰 반항 없이 잘 따라와주어서 너무 고맙고 뿌듯했다. 처음에는 마냥 해맑고 활기찬 아이들이 부담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런 모습조차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였다. 어린 아이들을 다루는 것에 서툴렀던 나였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봉사자' 혹은 '선생님'으로서 대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다. 아이들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다가와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천진난만함, 착한 마음에 나도 같이 정화되는 기분도 들었다. 다음 여름 이화봉사단 때에는 내가 교환학생으로 출국하기 직전일 것 같아서 꼭 가겠다고 아이들에게 확실히 말해주진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음 이화봉사단에도 대한지역아동센터로 가고 싶다.

이화봉사단을 신청 할 때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팀원들과 기획하고 회의하고 정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봉사 활동을 가기 전 준비할 때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잘 참여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어떤 선물을 주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아동 봉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다. 처음에는 센터에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집중을 잘 안하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쉬는 시간에도 같이 놀아주면서 친해지면서 점차 활동을 잘 따라와 주어 즐겁게 봉사에 임할 수 있었다. 4박 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도 많이 들어서 떠날 때 많이 아쉬웠다. 겨울 방학 때 다른 계획이 없어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한 이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 준 것보다 받은 것과 배운 것이 더 많았던 활동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이화봉사단으로서 활동해보고 싶다.

지난 여름 고창에 위치한 한마음지역아동센터에 이은, 나의 두 번째 이화봉사단 활동이었다. 지난번과 다르게 팀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준비과정에서 참여를 많이 하지 못해서 가기 전에 내가 실수하진 않을까 계획서와 자료를 읽고 또 읽었는데도 막상 프로그램을 해 보니 완벽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기획단에서 미리 짜준 역사 프로그램 덕분에 준비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서 정말 좋았다.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독감에 걸려서 응급실에 가느라 급하게 상경해서 아이들과 작별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너무나도 아쉽고 다음 기회에 이 곳에 다시 와서 아이들과 또 만나고 싶다.

김*빈

아는 선배의 추천을 받고 무작정 지원해서 시작하게 되었던 활동이었다. 사범대라 교육봉사를 접할 기회는 많았지만 4박 5일 캠프형식의 봉사활동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다. 봉사 첫 날엔 팀원들끼리도 익숙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같이 힘들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센터에 도착해보니 아이들이 너무 소란스러웠고 그에 비해 센터 선생님이 질서를 바르게 잡아주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봉사단이 온전히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 버거웠다. 하지만 하루 이틀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이 익숙해지고 봉사단원들끼리 사이도 가까워지면서 활동이 재밌어지기 시작하였다. 물론 아이들을 다루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기는 했으나 그래도 우리의 말을 잘 따라주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뿌듯하였다. 마지막 날 아이들에게 편지와 선물을 건내주니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답장으로 편지를 써온 아이도 있었는데 너무 고맙고 뿌듯했다. 마지막 날 다시 서울로 떠나는 길이 너무 아쉬웠다. 우리 봉사단에는 이화봉사단을 두 번째 하는 단원이 2명이나 있었는데 나도 활동을 하면서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었다. 또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활동이고 기회만 된다면 꾸준히 도전해보고 싶은 활동이다.